

‘청년창업사관학교’ 전남 나주에도 문 열었다

중진공, 예비창업자·창업초기 전담코칭...최대 1억원 자금 지원
광주 등 5곳서 17곳으로 확대...나주는 민관협업방식으로 운영

전남지역에도 청년창업을 육성하는 정부의 대표적인 기관인 ‘청년창업사관학교’가 생겼다. 그동안 경쟁률이 치열하고 지리적 접근성이 떨어져 혜택을 받지 못하던 전남지역 청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중소기업진흥공단 전남지역본부는 25일 오후 나주시 빛가람동 예가람타워에서 전남 청년창업사관학교 개소식을 진행했다고 이날 밝혔다.

전남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기존 전국 5곳에서 운영하던 청년창업사관학교를 전국으로 확대함에 따라 문을 열게 됐다.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올해로 8년차를 맞이한 국내 최고 창업지원 사업으로, 예비창업자 및 창업초기기업을 지원하는 중진공의 창업지원 프로그램이다. 간간한 선정과정과 전담코칭인력의 밀착코칭이 지원되는 것으로 유명하다.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보유한 청년창업자의 시제품 제작과 해외진출, 투자유치 등 사업화를 위한 모든 단계를 지원하고 연간 최

대 1억원의 창업사업화 자금까지 지원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까지 총 1978명의 청년 CEO를 배출, 매출액 1조5397억원과 지식재산권 등록 4641건, 일자리 창출 4648명 등 성과를 거뒀다.

지난 2011년 경기도 안산에서 시작된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이후 꾸준히 전국 네트워크를 확대해 현재 광주를 비롯한 경산, 창원, 천안 등 5곳에서 운영 중이었다.

하지만, 지리적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역 청년창업자들의 의견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따라 신규 12곳을 증설, 전남에도 청년창업사관학교가 들어서면서 지역 청년들이 창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됐다.

청년들이 보다 쉽게 창업에 도전할 수 있고, 체계적인 교육과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지역 창업생태계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번 신규 개소한 전남 청년창업사관학교는 교육과 코칭을 담당하는 민간전문 운영기관을 선정했다는 점에서 청년창업가 역량강화에 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관협업 방식으로 운영하기로 하면서 민



지역 청년창업자들과 이상직 중진공 이사장, 손금주 국회의원, 최일 동신대학교 총장, 중소벤처기업지원 유관기관장 10여명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 청년창업사관학교 개소식이 열렸다. <중진공 전남지역본부 제공>

간의 창업자 양성역량과 함께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사업관리, 후속연계 역량이 더해져 시너지 효과가 창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남 청년창업사관학교의 창업자 양성원은 30명 규모로 민간 운영기관인 ㈜엘스톤이 지역 청년들의 창업역량을 키워나갈 방침이다.

이상직 이사장은 “청년창업사관학교의 전국 확대개소는 단지 물리적인 확장이 아니라 창업자와 민간운영기관, 중진공간 네트워크의 완성을 의미한다”며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서로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청년창업자들이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계현 원장의

특 특 창업이야기



점포개발의 핵심전략

창업에서 창업아이템과 점포는 가장 중요한 양대 성공요인이자 변수다. 하지만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창업자 입장에서 보면 좋은 창업아이템을 찾았다 하더라도 보유한 창업자금의 한계로 인해서 해당아이템에 적당한 최적의 좋은 점포를 찾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최근 들어서 불경기의 여파로 인해 빈 점포가 늘어나고 있기에 얼핏 창업자들에게는 선택의 폭이 넓어진 것 같은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반대로 해석하면 요즘 그만큼 장사가 전반적으로 잘 안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점포를 구하는데 있어서 더 많은 신경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가 된다.

많은 점포들이 임대 매물로 나오고 있지만 막상 매물로 나온 점포들을 분석해보면 그 중에 안정적인 수익성이 어느 정도 보장되는 점포를 찾기가 쉽지 않다. 대개의 경우 적은 세대수의 배후상권이나 낮은 유동인구량, 주 상권에서 벗어난 리스크 높은 점포, 가치 대비 과도한 월세 등으로 인한 불안정한 입지이기에 예비창업자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창업자금에 맞춰서 좋은 점포를 개발하는 일은 창업아이템을 찾는 일 못지않게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로 한다.

예비창업자들의 창업실패율이 높은 이유는 어쩌면 점포에서 기인한 부분이 가장 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넉넉하지 못한 창업자금으로 인해 만족할 만한 수익을 내기 어려운 점포에서 창업한 사람들이 자영업자가 되고 그 자영업자들이 결국 버티지 못하고 폐업을 하면 또다시 창업자금이 넉넉하지 않은 예비창업자가 그 점포에 다시 들어가서 창업을 하여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기 때문에 창업실패율이 높은 것이다.

결국 대개의 예비창업자들은 최고의 점포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리스크를 감수해야 하는 차선 또는 차차선 쪽의 점포를 찾아 헤매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된다.

그렇다면 그나마 나은 점포를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찾아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 하자. 첫번째는 너무 조급하게 점포를 찾으려 하지 말아야 한다. 예비창업자들은 점포분석 전문가들이 아니다. 어찌 보면 낯선 처음 해보는 일 중 하나가 점포개발일 것이다. 그래서 조급하게 점포를 계약하려 하지 말고 여유를 가지고 몇 개의 목표상권을 정한 후 수시로 방문하여 새콤 매물로 나온 점포를 확인하고 관심이 가는 점포에 대해서는 평일과 주말, 점심과 오후 그리고 저녁 시간대의 유동인구를 체크하는 일이 중요하다.

두번째는 잘 아는 상권들을 최우선 목표상권으로 삼아야 한다. 잘 모르는 상권에서의 창업은 더더욱 리스크를 키우기 때문이다. 만일 잘 모르는 상권에 대한 관심이 생겼다면 날마다 방문하다시피 하여 그 상권만의 특징과 흐름을 이해한 이후에 점포를 구해도 늦지 않다.

세번째는 매물정보를 부동산업소나 생활정보지, 상가 관련 앱 등을 통해서 확인하더라도 점포의 경쟁력이나 아이템, 입지의 적정성은 해당 상권의 주 이용고객들이나 해당 상권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볼 필요가 있다. 네번째는 해당 상권의 업종분포도나 동종 또는 유사업소의 수와 각 업소들의 경쟁력을 반드시 파악한 이후에 점포를 계약할지 말지를 결정해야 한다. ‘호랑이’ 급의 규모와 경쟁력을 가진 업소가 이미 몇 개 있는 상권에 ‘늑대’ 정도의 규모와 경쟁력으로 진입하더라도 결과는 참담하게 끝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다섯번째는 과도한 권리금이 아니라면 권리금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다. 권리금이 없는 점포만 찾다보면 만족스러운 점포를 발견하기란 정말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지역산업연구원 원장>

맥주로 배우는 문화 창업 스토리

문화전당 30~31일...창업 경험담 듣고 시음 행사도

다양한 맛의 맥주를 찾는 사람들 늘면서 사례 역시 증가하는 가운데 맥주 창업과 관련된 열린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전당장 직무대리 이진식)은 오는 30일과 31일 맥주를 주제로 한 문화강연과 창업방안을 제시하는 특별프로그램 ‘쇼미 더 비어’(Show me the beer)를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30일에는 성균관대학교 식품생명공학과 김관배 교수가 세계 각국의 맥주 역사와 관련된 이야기를 소개하는 강연을 진행한다. 이어 광주 수제맥주 회사 창업자가 자신의 경험담을 들려주고 맥주를 제조하고 시연하는 시음회도 제공할 방침이다.

또 31일에는 전남대학교 문화인류고고학과 이기중 교수가 ‘맥주인문학’이라는 주제로 맥주 탄생의 역사와 맥주를 통해 본 문화·예술 등을 소개한다. 이어 무등산브루어리 윤현석 대표를 초대해 창업사례와 방법 등에 대해 설명하고 시음행사도 진행한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관계자는 “독특한 주제를 통한 문화에 대한 새로운 접근과 청년들에게 창업에 대한 의욕을 증진시키기 위해 마련됐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

광주전남벤처포럼서 창업스토리·개발과정 공유



광주전남벤처기업협회

광주전남벤처기업협회(회장 김명술)는 지난 24일 빛가람혁신도시 호텔코어에서 ‘제5회 광주전남벤처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광주전남벤처기업협회와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순천대학교 창업지원단이 공동 주최했으며, 스타트업과 중소벤처기업인, 유관기관 관계자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혁신제품 발표회에서는 국내 최초로 ‘중·소형 해수담수화장치’를 개발해 해외시장에서 각광받고 있는 ㈜필터테크(대표이사 박

서운)가 개발과정에 대해 발표했다. 필터테크는 광주·전남지사를 설립해 고질적 식수난 문제를 겪고 있는 전남 섬 등 국내 도서지역 물부족 문제 해결에 나설 예정이다.

또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 받아 스타트업에 도전해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대전의 ‘새천년기’ 김선호 대표가 벤처창업 성장스토리를 발표했다.

김명술 회장은 “앞으로도 지역 유관기관·단체와의 교류협력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며 “지역을 벗어나 전국적인 네트워킹을 통해 광주·전남지역 벤처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

CHANNEL A 미니시리즈

연두밤

사랑에 빠지기 충분한 시간

한승연 신현수
연출 정현수 극본 황숙미

2018.10